

2008 임현미의

춤 공 명

“공명”

2008. 10. 30 (목) 31 (금) 8:00 PM
부산 민주공회관 소극장

2008 Lim Hyun Mi Modern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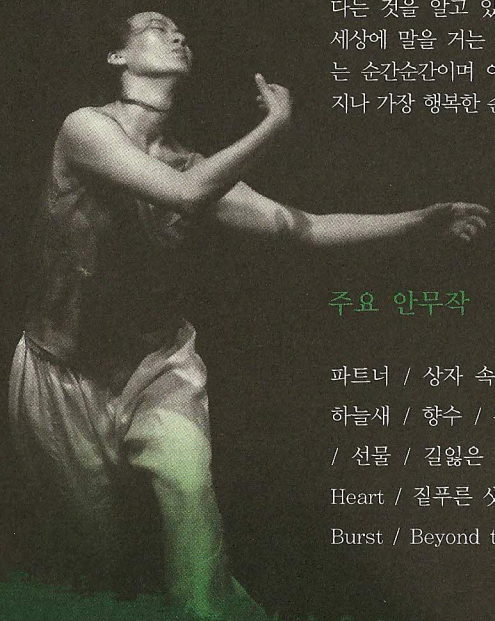
임현미

그녀의 춤에서는 전통의 향기가 묻어난다. 아마도 어릴 적 이매방 선생에게서 사사받은 흔적일 것이다. 비록 커가면서 현대춤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지만 그녀의 춤에서 묻어나오는 전통의 향기는 춤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대학교에 들어와 타고난 춤사위로 무용제 연기를 수상하는 등 현대춤의 한 복판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지만 더욱 새로운 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직업무용단(트러스트 무용단)을 창단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춤추는 독립춤꾼이다. 그녀는 현재 자유로운 춤을 지향하는 춤꾼들과 함께 춤으로 만난 붉은 인연이라는 뜻의 연분홍이라는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녀는 춤의 힘을 믿고 있다. 춤이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있고 삶의 깨달음이 춤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말을 거는 모든 것이 춤 안에서 행해지는 순간순간이며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언제가 지나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주요 안무작

파트너 / 상자 속의 아버지 / Tell / 새벽 / 하늘새 / 향수 / 완행 / 폭포 / 속도와 공간 / 선물 / 길잃은 날 / 강 / 진달래꽃 / The Heart / 질푸른 셋잎처럼 / Flying / 마고 / Burst / Beyond the cliff 외 다수.

“ **시월의 끝에서 :**

바람이 어느새 매서움을 지닙니다.
아침채비가 더 번거로워졌고
어깨도 제법 많이 무거워 졌습니다.
그 덕에 파스함이란 놈을 얻어 입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서 파스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엔,
여덟살의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아버지의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소리와 흥분과 추위로
불계 물든 불을 하고서 어렴풋한 장구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는지 가슴을 뚫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저와 춤 님의 첫만남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산을 덮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설레임은 세월 속에서,
많은 기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을 이름 바꾸어 **공명** 이라 했습니다.

나를 공명시켰던, 내가 공명시켰던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춤추게 했던 기억들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공명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공명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공명하고 싶습니다.

“ **공 : Resonance**
명

두려워 보였다.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뭘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몸 속 깊은 곳으로부터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힘이 되었다. Dance 승민

고요한 물 위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듯
마음 속의 파장으로 서로의 마음을 교류한다.

말로 설명하지 말아요.
않아도 되요.
그래도 당신 마음을 알 수 있는 걸.... Dance 현진

“ **바람을 품고... : taking the wind**

참음은 어제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고
"조금만 더" 라고 말하는 나를 생각하게 하고

뜨거움과 푸르름을 생각하게 하고
서른살의 운명을 생각하게 하고

카네이션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을 있게 하고

신 승 민

전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 제1회 신승민의 춤 "몸의 시학" 안무 및 출연,
현, 부산여대 출강

김 현 진

2008 연분 홍 "그렁그렁(안무: 조희정)" 출연, 제26회 부산무용콩쿨 금상수상,
현, 부산대 무용학과 재학중

박 새 론 (첼로) 현, St. Petersburg 국립음악원

장 재 희 (장구) 현, 남산놀이마당 상임연출

김 대 길 (장구) 현, 남산놀이마당 단원

이 동 진 (빛:라이팅) 현, 라이팅 디자이너 프리랜서

“ 공 : Resonance 명

공명(共鳴, Resonance)이란 두 개의 다른 파장이 합쳐져 나타나는 일정 주기로 반복하여 보이는 현상으로 소리, 전기, 기계 등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공명의 과정을 거쳐 인지되고 있다. 많은 소리, 움직임, 감정, 선과 악, 즐거움과 괴로움, 늙음과 젊음, 높고 낮음, 밝고 어두움, 투명함과 탁함, 가벼움과 무거움, 삶과 죽음, 생산과 파괴 등등 다르고 대립되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시공간 속에서 합쳐지고 감해져서 나타나는(생성하는) 현상들이다.

태초에 정(定)해지고 명(名)해지지 않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분되고 관념화되어 존재하여 지금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으로 여겨지는 의식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판단되어 켜질 것과 없어져야 될 것이 구분되는 현재로만 진행될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공명은 인간사회에 이(利)로운, 특히 장기간에 이로운 현상들은 크게 모이고 해(害)로운 것들은 없어지면서 같은 주파수의 공통분모는 커지고 나머지는 작아지는 현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지속된다.

같은 시간, 공간에서도 그 안에서의 내용도 공명한다.

같은 행위 속에서도 빠르고 느린 템포의 변화로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빛, 소리, 공간을 불문하고 공명하면서 존재한다. 어디 하나만으로 독존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무대도 마찬가지다. 무대의 안과 밖 무대와 객석 천장과 바닥 어느 곳에서든 공명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공 : 명

STAFF

무대감독 손재서 사진 이동현 영상 이광국 기획 원향미

주최 임현미 MDC 주관 민주공원 후원 부산광역시, 남도문화디자인연구소
문의 010-2756-1962 / 019-516-2201

본 공연은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